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축구 전쟁 시작된다

## 2010 남아공 월드컵



25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2010년 6월 11일 남아공 월드컵축구대회 본선 무대를 향한 전 세계 170개국의 전쟁이 시작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날 2009년 11월 11일까지 무려 2년이나 이어진 전 세계에서 무려 861경기가 펼쳐진다. 대륙별 본선 티켓 배분은 유럽 13장, 아프리카 5장, 아시아 4.5장, 남미 4.5장, 북중미-카리브해 3.5장, 오세아니아 0.5장이다.

호주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편입했다는 점을 빼면 2006년 독일

월드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시아 5위는 오세아니아 1위와, 남미 5위는 북중미 4위와 각각 플레이오프를 치러 0.5장씩으로 쪼개진 마지막 두 장의 티켓 주인을 가린다.

아시아에서는 하위팀들끼리 1,2차 예선을 치러 3차 예선에 진출하는 20개국에 가려졌다. 한국은 2번 시드를 받아 1,2차 예선을 면제받고 3차로 진출한다. 한국과 호주, 이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드 배정국이다.

시드는 FIFA 랭킹에 따라 결정된다.

아시아 예선은 20개국에 네 팀씩 5개조로 나누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3차예선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어 각 조 1,2위팀이 최종예선에 오른다.

최종예선에 진출하는 10개국은 다시 두 조로 쪼개져 또 홈앤드어웨이로



## 내일 자정 예선 조편성

리그를 벌여야 한다. 조 1,2위 네 팀은 본선에 직행한다.

조 3위 두 팀은 아시아 지역내 플레이오프를 벌여 승자가 오세아니아 1위와 마지막 한 장을 놓고 다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가장 많은 13장을 받게 되는 유럽은 53개국이 9개조로 갈라져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 아홉 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 2위 가운데 8개 팀이 남은 네 장의 티켓을 잡기 위해 플레이오프를 하는 방식이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개최국 남아공을 포함해 여섯 팀이 본선에 나갈 수 있다. 아프리카는 3라운드 예선을 거치는데 1차는 이미 끝났다.

현재 48개국이 남아있고 모두 12개조로 나누어 2차 예선을 치른다.

북중미카리브해 지역도 복잡하다. 1,2차는 토너먼트로 가려내고 살아남은 12개국이 세 조로 나누어 각 조 1,2위팀이 최종예선에 나간다. 최종예선은 조 구분없이 6개국 풀리그로 펼쳐져 1-3위는 남아공행 티켓을 손에 넣는다. 4위는 남미 5위와 플레이오프를 해야 한다.

남미는 10개국 풀리그로 본선 진출팀을 가린다. 지난 달부터 불꽃튀는 예선이 막을 올린 상태다. 이날 조 추첨은 아시아가 맨 먼저 하고 이어 북중미, 유럽, 아프리카 순으로 진행된다.

조 추첨식에는 각국 대표팀 사령탑과 축구계 인사들이 대거 몰려든다. 유로2008 예선에서 기적같은 본선행을 이뤄낸 거스 히딩크 러시아 감독 등이 참석한다.

한국은 대표팀 사령탑이 공식이라 참석자가 없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현지로 날아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상**

- 한국
- 쿠웨이트
- 레바논
- 싱가포르

## 한국 최상·최악의 시나리오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륙별 예선 조추첨 행사가 25일 자정(한국시간) 남아공 2010 월드컵 예선 조추첨이 이뤄진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06 독일 월드컵 예선 및 본선 성적에 바탕으로 지난 21일 20개국의 시드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2번을 받았다.

고승환 대한축구협회 대외협력국장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조추첨 방식에 대한 통보는 없었지만 AFC가 발표한 랭킹에 따라 1~5번, 6~10번, 11~15번, 16~20번을 각각 한 그룹으로 묶어 추첨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은 호주, 이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3차예선에서 맞붙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월하게 최종예선에 오를 수 있는 최상의 조편성은 어떤 것일까.

객관적 전력 상 최상은 쿠웨이트, 레바논(또는 요르단), 싱가포르와 한 조, 최악은 바레인, 이라크, 카타르와 한 조가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북한, 중국이 들어 있는 6~10위 그룹에서는 바레인이 가장 골치아픈 상대다.

한국은 바레인에 9승3무2패로 앞서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1-2로 역전패 하는 등 최

근 바레인의 전력이 급상장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반면 쿠웨이트와는 해볼 만하다. 역대 전적은 8승3무8패로 호감세지만 2004 아시안컵 4-0 승리를 비롯해 2006 독일 월드컵 예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2-0, 4-0으로 완파하는 등 최근 맞대결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우즈베키스탄도 괜찮다. 한국은 첫 만남이었던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0-1로 패했을 뿐 이후 4승1무로 무패행진을 벌였다. 독일월드컵 최종예선에서도 1승1무를 기록했다.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국가들이 속한 11~15위 그룹에서는 2007 아시안컵 우승팀인 이라크를 피해야 한다. 이라크에는 지난 7월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했다.

역대 전적에서 5승1무로 한 번도 저 본 적 없는 레바논이 무난한 적수다.

마지막으로 카타르, 시리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싱가포르가 속한 16~20위 그룹에서는 카타르와 시리아 등을 피해야 한다. 역대 전적 18승3무2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악**

- 카타르
- 이라크
- 바레인
- 한국



## 충격에 빠진 '축구 종가'

### 유로 예선 탈락 팬들 허탈... 맥클라렌 감독 해임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본선 진출에 실패한 '축구 종가' 잉글랜드 대표팀의 스티브 맥클라렌(46·사진) 감독이 결국 해임당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22일(한국시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표팀 감독인 맥클라렌 감독과 테리 베너블스 수석코치를 해고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제프 톰슨 FA 회장은 “매우 실망스럽고 맥클라렌 감독은 더욱 실망스러울 것이다. 잉글랜드가 메이저대회에 반드시 출전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충분히 기대할 만 한 것”이라고 아쉬워한 뒤 “그동안 대표팀을 이끌어준 맥클라렌 감독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맥클라렌은 재임 기간 총 18경기를 지휘하며 9승4무5패의 성적을 거뒀다. 맥클라렌 후임으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첼시 사령탑을 그만둔 조제 무리뉴(포르투갈) 감독과 애스턴 빌라를 맡고 있는 마틴 오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지낸 파비오 카를로도 잉글랜드를 맡고 있다.



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잉글랜드가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한 건 1994년 월드컵 때 이후 13년 만인데, 이로 인해 입는 손해는 500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바워 전부는 전했다.

“종가” 축구 팬들이 충격에 빠지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위안거리”를 제안했다. 브라운 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유럽 축구무대에 우리나라 팀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일부에선 내년엔 우리 네 팀끼리 대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총리가 말한 ‘영국 챔피언십’은 1984년까지 이어져 온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간의 국가대항전이다. 같은 나라지만 국제축구연맹(FIFA)에는 각각 별도로 가입돼 있어 A매치로 간주된다. 이 대회는 1883-1884년 시즌 세계 최초로 치러진 국제축구경기로 기록돼 있다.

브라운 총리는 “축구협회와 클럽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지만 난 1960년대와 70년대 이 대회가 열렸던 추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최경주 재단’ 발족

### 본격 자선 활동... 'KJ 주니어 골프팀' 창단키로

골프 실력 못지않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열성인 세계 정상급 골퍼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필생의 꿈인’ ‘최경주 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자선 활동에 나선다.

최경주는 23일 오후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최경주 재단’ 설립을 발표하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최경주가 주니어 선수였을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온 ㈜삼정 피홈 회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위촉하고 12명의 사회 저명인사로 이사진을 구성한 ‘최경주 재단’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라는 모토를 내걸고 최경주가 개인적으로 벌였던 자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벌여왔던 상금 등을 출연해 기본 자산으로 삼은 ‘최경주 재단’은 각종 기부 마련 사업을 벌여 가장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지원과 장학금 사업이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KJ 주니어 골프팀’ 창단 계획.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골퍼 꿈나무를 뽑아 최경주가 직접 가르

치겠다는 것이다. ‘제2의 최경주’, ‘제3의 최경주’가 지속적으로 배출돼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신의 대물림’을 바라는 마음이다.

재단은 미국에서도 소수민족 청소년 센터 지원과 어린이 암환자 돕기 등 최경주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선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최경주 재단’은 뜻이 맞는 기업과 손을 잡고 ‘최경주 주니어 골퍼대회’를 개최하고 기부 마련 파티 등을 기획, 한국에서도 자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자선재단 설립을 위해 200여원을 목표로 돈을 모으고 있다”고 자부 말했던 최경주는 “늘 마음에 담아왔던 재단을 설립하게 되니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 재해를 꿈꾸는 골퍼 꿈나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재단 이사장을 맡은 피홈 회장은 “최경주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우리 모두의 자선 단체가 되도록 꾸려나갈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멋진 활강 23일 캐나다에서 열린 월드컵 알파인스키 경기에서 오스트리아 헤르만 메이어 선수가 멋진 자세로 활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혜운 깜짝 선두... 신지애 공동 18위

### KLPGA ADT캡스 1R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역대 상금왕들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막내 김혜운(18·하이마트)이 깜짝 선두로 올라섰다.

김혜운은 23일 제주 서귀포시 스키힐 제주 골프장(파72·6천245야드)에서 열린 ADT캡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쳐 경쟁한 선배들을 따돌리고 단독 선두를 꿰찼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김혜운은 올해 2부 투어에서 상금왕을 차지하며 출전권을 따냈다.

대전제고 3화년에 재학 중인 김혜운은 번들(파4)과 12번홀(파4)에서 1타씩을 잃기는 했지만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버디를 잡아내는 쇼트게임 능력이 돋보였다.

2006년 상금왕이자 올 시즌 상금 랭킹 1위를 이미 확정된 신지애는 2오버파 74타, 공동 18위로 돌아왔다.

2003년 상금왕 김주미는 버디 2개에 보기 5개를 곁들여 3오버파 75타, 공동 24위로 경기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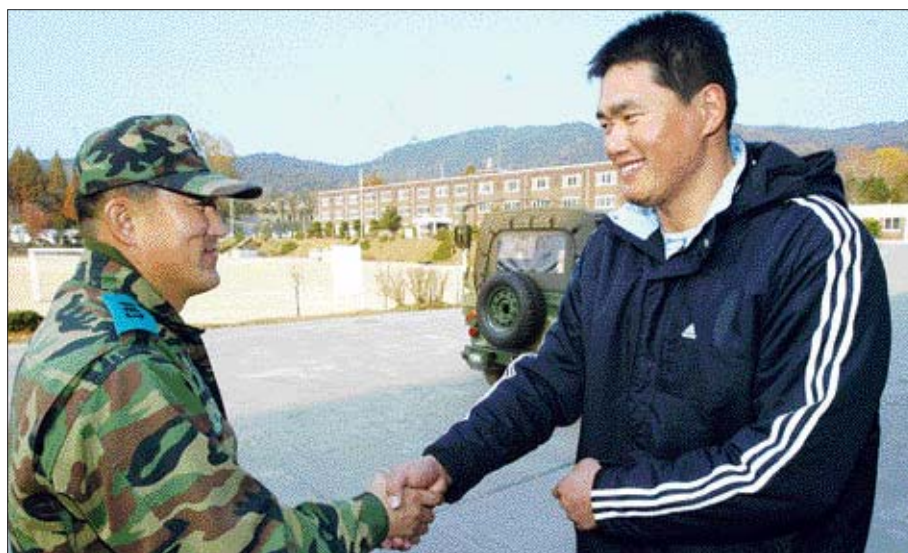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광주 3,500	광명900 6,200	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합평 7,400		

상담 문의 (062)351-0095



## 최희섭 퇴소... “훈련왕 기대하십시요”

KIA타이거즈 내야수 최희섭(28)이 육군 31사단에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23일 오후 4시 퇴소했다. 이날 최희섭은 4주간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내년 멋진 플레이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퇴소 소감을 밝혔다. 김현길 대대장이 최선수와 격려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